

예배와 분반활동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2025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 목회서신

| 김정석 감독회장

다음세대의 중요성에 관한 언급은 횡수에 관계없이 막중하고 가치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해마다 지키는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개체교회에서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교육진흥week일은 교회학교의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일으로써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으로 미래교회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세대를 향해 투자하지 않으면 교회의 내일은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다음세대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정신에 입각해 감리회는 해마다 기독교교육진흥week일에 맞춰 자료집을 발간하여 교회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갑니다.

다만 안타까운 일은 대체적으로 교회학교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춰지는 결혼적령기와 저출산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한편으로는 전도열과 신앙교육열정의 저하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전도열정을 끌어올리고 신앙교육에 관한 고민과 함께 대안마련도 깊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합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기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중국 제나라 재상 관중이 썼다고 알려진 <관자>라는 책에서 유래합니다. “곡식을 심는 것

은 일년지계,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終身之計)”라는 구절로써 교육은 100년짜리 계획이 아니라 평생 갈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의 백년, 그 너머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신앙교육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가르치고 양육하는 신앙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 인재,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아 교회교육의 일선에서 가장 애쓰고 있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살피고, 그 후에 분반공부를 어려워하는 교사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사는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어린이들의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어린이들은 ‘분반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짧은 분반공부 시간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준비하여 아이들을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 제공하는 자료집을 통해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고민이 조금은 덜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분반공부를 통해, 교사와 어린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딤후3:17)하는 성경과 더 가까워지길 기대합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는 가장 큰 에너지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신앙교육이 값지고 소중합니다. 성경에 바탕한 신앙교육만이 교회와 우리 사회를 향해 다시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희망의 산실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

로마서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양승준 목사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및 교목

기독교 신앙전통에서는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 Church triumph, 그리고 이 땅의 교회 militant church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교회는 군인들처럼 교전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휩싸여 투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지속적인 문제인데,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사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와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들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12장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고 깨닫는다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시며 온전하신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독교교육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902년, 안창호 선생님은 부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다음 날, 인천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조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교육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が必要하다는 생각에 결심한 유학길이었습니다. 당시 민족의식을 말살하려고 창씨개명까지 일삼았던 식민지하에서는 구국을 위한 공부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지만 언어의 문제에 봉착했고, 그는 2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샌프란시스코 한인 동포들의 삶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나라도 없고 의사소통도 안되는 한인들의 삶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안창호 선생님은 현지 한인들의 일자리와 정당한 임금을 위해 발로 뛰고 조직을 결성하고 스스로도 미국 가정의 가사고용인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또한 한인들이 집을 더럽게 사용하여 임대료를 꺼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일이 동포들의 집을 방문해 화장실 청소부터 커튼 달기, 창가에 꽃화분 심기 등 주변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직접 시범을 보이며,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제대로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사람들을 일깨웠습니다. 말로만 가르치고 지시하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부터 본보기를 보이고 근본부터 차근차근 다지려고 한 실천하는 지도자이자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통받는 자국민들과 삶을 함께하며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민하고 기본을 다져나간 교육 지도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의 진의를 의심하던 교포들은 그

의 계속된 노력에 감동하여 한인친목회에 가입하고 교민사회를 형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교육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변화,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지혜와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1. 거룩한 산 제물의 몸

원시시대 및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산 제사’로 재개념화하면서 살아 있는 제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산 제물’이란 “신자가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속적인 제사의 은유 표현”인데,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권고를 하면서 내적 변화를 통해 외적인 실천과 거룩한 삶을 요청합니다.

크리소스톰(성 소피아교회 담임목사)은 1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단순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영적(λογικὴν)은 “이성적인” 혹은 “합리적인”이라는 뜻이기에 예배는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함을 시사합니다.¹ 따라서 영적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배(λατρείαν)는 “예배” 또는 “섬김”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피상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입니다.²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며 거룩한 삶의 핵심적 요소입니다.³

이러한 영적 예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인 삶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리는 ‘살아 있는 제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3.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바울의 강조는 혁신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세속적 현상과 패턴에 휩쓸리지 말고, 신적인 패턴에 참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이행 조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고를 성취할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언하면 영적 훈련을 통해 영적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번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의 위대성은

¹ Ian W. Scott, “Your Reasoning Worship: ΛΟΓΙΚΟΣ in Romans 12:1 and Paul’s Ethics of Rational Deliberation,”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9.2, 2018, 502.

² Ibid., 506–508.

³ 김세윤. 『칭의와 성화: 칭의란 무엇이고, 성화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3), 178–190.

수많은 선현들이 지적인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 마음을 새롭게 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바 있습니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도스토예프스키), “습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오비디우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아리스토텔레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아 오늘 말씀에서 권고하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 마음을 새롭게 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세 가지의 영성습관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예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예배입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 영감 있는, 강력한 공적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칼뱅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주며, 성령의 임재에 대해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을 맑게 해 주고, 우리의 영적 청력을 예민하게 해주며,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사귄’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강력한 영적 충전을 해 줍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적은 수의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자신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제는 개인주의를 넘어 고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사도바울이 사용한 단어인데, 고대 그리스의 시의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뜻의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민들은 에클레시아를 통해서만 아름답고 좋은 인간다운 삶(good life) 이

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에클레시아에 단순히 참석한다는 것보다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참여하는 일 자체를 매우 큰 명예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까? 지금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정의하고 표현할 때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신들의 모임에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습니다. 그 모임은 사적인 모임(private gathering)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public gathering)이었고, 후에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모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를 회복하고 드러내려면 함께 모여 사랑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사귀며 아름답고 좋은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높여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 홀로 계시지 않으셨고,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개인주의와 고립주의를 버리는 것, 허탄하고 무의미한 모임들을 배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자극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공동체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는 이런 모임 공동체를 경험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런 진지한 사귄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다른 만남까지도 그러한 영적인 만남의 경지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자라게 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영적인 사귄을 통해 자라는 것이 쉽고 빠르며, 올바르고 안전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신앙공동체에서 영적인 사귄의 장이 더욱 확장되고 참된 영적 사귄이 이루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의 ‘경건 생활’입니다. 이것을 보통 Daily Devotion이라고도 하고, 더 흔하게는 QT 혹은 Quiet Time이라고도 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건 생활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몽크(monk)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수도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열에 아홉은 반복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예배, 기도, 묵상, 노동 등 매일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러한 반복을 통해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조선 후기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애 땡벌에 그리 고생을 하고 계시우? 머슴들 시키시지!” 테니스 같은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건강과 실력이 좋아지며 잘할 수 있게 되는 보상이 뒤따릅니다.

매일의 경건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죠지 물러는 “지난 47년 동안 성경을 100번 정도 통독 하였고 되풀이해서 읽을 때마다 나의 영혼은 신선해졌으며 평화와 기쁨이 날로 더해갔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 하는 일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영적 교제와 사귄, 그리고 홀로 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경건 시간을 훈련하면서 영적 습관을 형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습관의 전문가들이 되시길 소망하시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문

1. 목적 : 예배에 대한 결단

2. 목표

- ① 초대교회의 예배와 삶, 출애굽 여정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한 예배구조를 되새기며, 예배의식의 경험을 통해 예배자로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끈다.
- ② 감리교의 예배 원형을 토대로 세례 받을 때 갱신의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세례 재확증 의식, 그리고 신적인 삶(divine life)을 위한 성만찬이 포함된다.

3. 초점 : 모든 회중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예배를 표방한다.

4. 덧붙임 : 예배의식의 모든 언어와 행위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이다. 이 모델을 참조하여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목회자가 재구성할 수 있다.

| 양승준 목사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및 교목

모임

1) 예배로의 부름

저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저희의 모든 소원들을 아시며 숨겨진 어떤 비밀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저희 마음의 생각들을 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 찬미하게 하옵소서.¹

2) 찬양 / 예배합니다

3) 십계명 낭독² / 집례자

이제 집례자는 회중에게 몸을 돌려 십계명을 한 조항씩 읽는다. 회중은 십계명이 한 조항씩 읽혀질 때마다 과거 그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해 자비를 구하고 앞으로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은총을 구한다.

• 집례자 :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나 외에는 다

¹ 나형석, “감리회 예배 원형과의 대화”(서울: 좋은 땅, 2013), 13.

² 십계명은 하나님께 오도록 은혜와 선물로 주신 법이다. 이것을 지키지 못해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따라서 성만찬이 포함된 예배에서 십계명 낭독은 율법을 완성시켜 달라는 의미이다. 즉 회중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는 뜻이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며, 계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에 앞으로 나와 성찬을 받으라는 깊은 의미의 초청이 될 수 있다.

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 회 중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법 지킬 수 있게 하소서.
- 집례자 :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회 중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법 지킬 수 있게 하소서.
- 집례자 :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회 중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법 지킬 수 있게 하소서.
- 집례자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회 중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법 지킬 수 있게 하소서.
- 집례자 :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회 중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법 지킬 수 있게 하소서.
- 집례자 : 살인하지 말라.
- 회 중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법 지킬 수 있게 하소서.
- 집례자 : 간음하지 말라.
- 회 중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법 지킬 수 있게 하소서.
- 집례자 : 도둑질하지 말라.
- 회 중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법 지킬 수 있게 하소서.
- 집례자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회 중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법 지킬 수 있게 하소서.
- 집례자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 회 중 : 주여, 간구하옵나니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능히)이 법 지킬 수 있게 하소서.

4) 죄의 고백

- 집례자 : 이제 다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회 중 : [개인 참회의 기도] 전능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잃은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나아가 범죄 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욕망을 좇았사오며 당신의 거룩한 법을 어겼나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치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했나이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고백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회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한 당신의 약속을 따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5) 사죄의 선언

- 집례자 :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 회 중 :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 다같이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6) 삼위영가 /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7) 성령임재의 기도/ 집례자

주님이시여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저희의 영과 마음을 여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될 때,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여사 들을 때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 찬송가 366장 2절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1) 성경봉독 : 말은 이 / 로마서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 말씀선포 / 설교문 참조

세례 재확증 예식

1) 예식사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례인 세례를 통해 이미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며,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물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세례의 언약을 재확증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자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2) 죄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

- 집례자 : 역사적으로 교회는 세례언약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였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시고,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재확증하도록 합니다.
- 집례자 :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 악의 세력을 거부하겠습니까?
- 회 중 : (침묵)
- 집례자 :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욕망들을 버리겠습니까?
- 회 중 : (침묵)
- 집례자 :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하겠습니까?

- 회 중 : (침묵)
- 집례자 : 여러분은 진정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 회 중 : (침묵)
- 집례자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주님만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섬기며 살 것을 약속하십니까?
- 회 중 : (침묵)
- 집례자 :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 회 중 : (침묵)
- 집례자 :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 집례자 :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 회 중 :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집례자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 회 중 :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 집례자 :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 회 중 :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 물에 대한 감사 / 성결의 기도

- 집례자 :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식을 행하도록 저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를 통해 물 속에서 구원하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가르심으로 구원하셨으며, 요단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 받게 하시고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를 재확증하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
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4) 재확증 의식 (①기도 - ②세족식 - ③안수와 도유 / 찬양 : 찬송가 621장)

① 기도

태초에 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에덴의 네 줄기 물로 대지를 윤택하게 하신 분, 홍수로 세상
을 정하게 하신 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분, 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신 분, 이렇게 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물로부터 모든 부정한 영들 달아나게 하소서.³ 이 물로 이제 생명력
있게 하사 더 이상 육과 피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창조자 아버지 하나
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성령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⁴

- 집례자 :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세례를 재확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성결
된 물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시고, 세례에 받았던 그 물
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리에 바르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목회자는 회중에게 각 지점에 있는 세례반에서 의식을 행한다. 세례갱신 의식 후
흰옷⁵을 입히는 것도 좋다.

세례갱신을 행할 목회자가 없을 시엔 강단 앞에 두 개의 세례기를 놓고, 회중이 두 줄로 나와
세례기의 물을 떠서 손으로 움켜쥔 채,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고 감사
합니다”라고 말한다.⁶

② 세족식 - 발 씻음⁷

³ 터툴리안(북아프리카 3세기), 세례에 대하여. 3.물과 창조 참조

⁴ 세라피온의 전례집(이집트, 4세기), 2장.

⁵ 목회자는 흰 옷을 입히며 “거룩과 영광의 흰 옷 입혀지도다”라고 말한다. 나형석, “세례묵상”(서울: 좋은 땅, 2010), p.142.

⁶ Henry H.Knight III, Eight Life-Enriching Practices of UNITED METHODISTS, Abingdon Press, 2001, p69

⁷ 밀란의 암브로우스(이태리, 4세기), 사크라멘트에 대하여. 나형석, “세례묵상”(서울: 좋은 땅, 2010), p.149.

세례의 물로부터 올라왔나이다.

당신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나이다.

제가 감히 어찌 당신의 손에 제 발 맡기겠나이까

그러나 저의 성화를 위해 감히 간구하오니

은총을 베푸사

당신이어! 제 발을 씻어주소서

③ 안수와 도유

- 집례자 :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한 후 이마에 오일로 십자가 성호를 그으며) “000, 당신에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재확증 의식의 배경 찬양 : 찬송가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5) 세례 재확증 및 결단 : 다같이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에 나를 향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 가운데 내가 있게 하소서

행동하는 곳에 고통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며 당신에 의해 사용됩니다

당신을 위해 높아지며 당신을 위해 낮아집니다

나는 충만하게 되고 공허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아무 것도 갖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통치(재량, 처분)를 위해

나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모든 일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위일체의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숨씨로 나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과 연합하게 하소서

내가 땅에서 한 약속은 나로 하여금 하늘을 확증하게 합니다⁸

- 다같이 : 제가 감히 일어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게 되리이다. 만일 제게 기름이 부어지고,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면!⁹

성찬

1) 성찬준비 /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 이제 세례를 갱신하고 다시 확신하며 약속한 여러분을, 주님의 성찬상으로 초대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엄숙히 이 성찬상에 둘러 앉으시기 바랍니다. 쪼개진 빵 안에서 주님을 맛보고 신비한 포도주를 통해 주님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신적 사랑으로 차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의 식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회 중 :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2) 성만찬 제정사(institution)¹⁰

- 집례자 :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집례자는 떡을 두 손으로 든다)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집례자는 떡을 내려 놓는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사 (집례자는 잔을 두 손으로 든다)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⁸ 세례에 대한 이 찬송은 웨슬리 전통에서의 기도문이다. 웨슬리는 회중의 세례시에 이 찬송시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아마다 웨슬리의 찬양규칙에 의하면 한 줄씩 설명한 후 불러주고 부르게 하며, 영적으로 찬양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가사의 내용과 유익을 제대로 알며, 영적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찬송시를 보면, 세례의 순서(action of liturgy)가운데 신앙문답(마귀를 부인, 예수에게 충성을 다짐)에 속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접붙임)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 Henry H. Knight III, Eight Life-Enriching Practices of UNITED METHODISTS, Abingdon Press, 2001, p70 The United Methodist Hymnal(Nashvill: The United Mrthodist Publish House, 1989), p607

⁹ 몸수아시아의 테오도르(서시리아, 4세기), 세례설교, 나형석, "세례묵상"(서울: 좋은 땅, 2010), p.156.

¹⁰ 축사하시고 부활의 핵심을 이루는 순서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최후 만찬을 베푸시던 모습을 재현한다. 이 성만찬 제정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행하고 있는 성찬이 주님의 명령으로 제정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으로 그리스도교 예배의 가장 존엄한 전통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희생의 실재를 새롭게 경험하고 재현하는 의미가 선포되는 것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집례자는 잔을 내려 놓는다.)

3) 성령임재의 기원

- 집례자 :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 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4) 평화의 인사 / 마태복음 5:23-24 / 찬양 : 축복의 통로

- 찬양연주 :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 말씀봉독 : 네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네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우리의 삶을 봉헌할 때, 먼저 형제자매들과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상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자매와 화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해가 이웃과 세상에 널리 확장되길 바랍니다.
- 다같이 : (돌아가며 모든 참석자들과 허깅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5) 분급 (떡과 잔을 나눔)¹¹

- 집례자 :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 회 중 :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 다같이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집례자 :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을 위해 찢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을 위해 흘리셨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접촉하시고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화 되어갈 것입니다.

¹¹ 성찬의 '나누어 주시며' 부분으로 집례자와 보조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예배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때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혹은 "하늘의 떡,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잔, 예수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한다.

(먼저 집례자가 떡과 함께 포도주를 먹고 마시거나, 혹은 떡을 떼어 포도주에 담갔다가 먹는다. 그리고 먼저 성만찬 보좌위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분급한 후, 이어서 예배자들에게 분급한다. 분급은 예배자들을 강단으로 나오게 하되,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는 자리에 앉힌 채 할 수도 있다. 분급하는 동안 반주자는 찬송을 연주¹² 하고 예배자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거나, 혹은 조용히 기도를 드린다)

- 집례자 : (떡을 주면서)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 집례자 : (잔을 주면서)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 회 중 : (받는 이는 목례를 하면서) 아멘.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 떡을 받은 후, 오른손으로 떡을 집어 포도주에 담갔다가 먹거나, 또는 떡과 함께 포도주 잔을 받아먹고 마신다)

6) 성찬 후 감사기도(Post-Communion Prayer)¹³ / 분급이 끝난 후, 다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1) 권면의 말씀 (로마서 12:1-2, 메시지 version)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 자고 먹고 공부하고 일하며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¹² 분별찬양: 성만찬과 관련된 찬송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떼제 찬송 14.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예수님,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¹³ 이제 성찬을 들으며 구속의 은총을 확증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와 영광을 체험한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한다. 여기서 세례의 일치와 성찬의 기쁨을 감사하며, 이미 주어진 화해의 의미를 깨닫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 하늘나라의 잔치에 모두 참여할 것을 기원한다.

현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2) 파송 (바다와 하늘의 주)

- 집례자 : 그리스도의 일꾼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선교와 봉사의 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 회 중 :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 독창자¹⁴ :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둔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 다같이 :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3) 축복의 기도 : 목사

생명의 하나님, 저희가 평화와 정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¹⁴ 목회자 혹은 노래를 잘하는 예배자가 말도록 한다.

교사들이 알아야 할 예배의 이론과 실제

| 양승준 목사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및 교목

들어가는 말

예배(禮拜)를 한자어로 풀이하면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이다.¹ 설날을 맞아 아이들과 웃어른께 세배하러 간다고 가정해 보자. 어른에게 인사를 하러 갈 때, 그 어른이 누구이고 어떻게 인사해야 하며, 어른과 대화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에 세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아이들은 배운 대로 어른께 예를 갖추어 절하면서 ‘세배는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될 것이다. 웃어른께 세배하는 일을 가르치고, 직접 실행함으로써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데 이는 예배를 위한 교육이다. 또한 예배에 직접 참여하고 예배를 경험해 봄으로써 예배를 제대로 배우고 행할 수 있다. 이를 예배를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와 교육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교육을 분리하여 행하고 있다. 예배는 성전에서의 회중의 중요한 모임이고, 교육은 교육관이나 구분된 공간에서 행하는 성경공부 정도로 취급한다. 모든 신앙공동체에서는 예배와 교육이 분리, 단절, 구분이

¹ 한자어 어원 '예'는 "제사를 담은 술을 담은 단지"를 뜻하는 말이고, "배"는 거기에 "손을 모아 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다.

아니라 상호침투, 상호진밀, 상호내주, 상호의존의 삼위일체적 관계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Zizioulas, 2012, 233-234). 예배는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기에 예배를 위해 배워야 하는 것들과, 예배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예배와 교육은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을 지니며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I 장에서는 예배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정리하였다. 용어정리는 예배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II 장에서는 예배의 신학적·제의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III 장에서는 교육목회의 핵심인 예배를 다루면서 교육목회와 예배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을 언급하며, IV 장에서는 교육목회의 요소 5가지가 예배에서 경험되고 의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I. 예배의 용어적 의미

예배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할 때 유용한 방법은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를 지칭하기 위해 선택하여 사용하는 용어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제시되는 용어는 다양하며, 어원이 세속적인 곳에서 유래하는 것도 있다. 각각의 용어들은 서로 보충,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한다. 용어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를 통해 예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²

1. 예배(Gottesdienst: Divine Service)

예배란 독일어로 ‘Gottesdienst’이다. 영어로는 ‘Service of God’인데, 독일어 문법에 의해 ‘Gottes’를 주격, 목적격으로도 해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섬김”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을 모두 한단어로 포괄한 신비로운 단어이다. 우리가 “예배에서 행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교통”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³

‘Gottesdienst’의 생소한 것은 ‘-dienst’ 부분인데 독일에서 주유소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영어에서는 service가 가장 가까운 동의어인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준다”이다. 서비스란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로잡혀 있는 노예를 의미하는 라틴어 ‘servus’에서 유래되었다. 의무를 뜻하는 라틴어 ‘officium’에서 유래된 ‘office’역시 예배의 서비스를 위해 사용된다. ‘Gottesdienst’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

²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조기연 역. 『기독교예배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1

³ 임영택, 나형석, 『예배교육목회』(서울: kmc, 2014) 30.

나눔과”(빌 2:7)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을 반영하고 있다.⁴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과 봉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 즉 하나님의 계시가 선행되며,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장으로 연결될 때이다.

2. 예배의식, 예전(Liturgy)

예배를 지칭하는 용어 중에 ‘liturgy’가 있다. 헬라어 ‘leitourgia’가 어원인데 공적인 봉사(public service)를 의미하며 교회 예배의 중심이다. 특별한 순서와 성찬을 뜻하기도 한다.⁵ ‘leitourgia’는 노동(ergon)과 국민(laos)의 합성어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Liturgy’는 시나 국가의 전체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공익사업을 지칭했다. 그 원리는 세금을 내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Liturgy’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이 수행하는 노동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적인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전형이다.

예전(Liturgy)은 특히 로마 가톨릭, 영국 성공회, 루터 교회와 같은 고교회전통(high liturgical church)에서 교회의 공중 예배(public worship)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 말은 역사적 변천을 갖고 있는데, 1세기에는 교회 목회자의 직무와 거룩한 예배의 모든 행위를 가리켰고, 4세기 동방교회에서는 성찬의 집례만을,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는 성무(divine office), 교역(ecclesiastical office), 거룩한 제의(sacred rites) 등등의 모든 공중 예배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러 ‘liturgy’라는 말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예전적 활동들을 지칭하는 말로 최종 정립되었다. ‘Liturgical’을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각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⁶ 이는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적 봉사행위를 뜻하는데 기독교적 의미에서는 사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사하는 사제적, 공동체적, 참여적 봉헌행위를 뜻한다. 기독교교육은 이 예배 및 봉헌행위를 위해 책임 있게 준비하여 계획적인 교육의 터를 제공해야 한다.⁷ 이처럼 예전과 교육이 함께하는 것은 커다란 쟁점이다.⁸

⁴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조기연 역. 『기독교예배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2.

⁵ Philip H. Pflatticher, Dictionary of Liturgical terms.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1, 76.

⁶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조기연 역. 『기독교예배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2-33.

⁷ 임영택, 나형석, 『예배교육목회』(서울: kmc, 2014) 20-21.

⁸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y: The Seabury Press, 1976, 55..

Gottesdienst: Service of God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봉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과 봉사

Liturgy(=leitourgia): 일(ergon)+사람(laos)

전 피조세계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회중적, 공동체적, 참여적 예배행위

3. 의식, 예식(Rite)

라틴어 ‘Litus’가 어원으로 종교적 관습과 용법(usage)을 의미하며, 장례식과 같은 예배 순서나 교회의 중요한 부분의 사용에 따른 전례예식(liturgical service) 전체를 뜻한다.⁹ 종교적 행위를 형성하는 형식적인 행동과 행위를 말하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 혹은 신약 시대의 성찬 등이 다 의식의 예이다. 의식은 연대성의 의식(Rites of Solidarity)과 통과 의식(Rites of Passage)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연대성의 의식은 드라마틱한 성격을 지닌 의식으로 공동체가 지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해, 공동체의 감각과 정체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식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성례의식, 교회력에 따른 예배 등이다. 의식의 역할은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축시키며 공동적인 정체성을 설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통과 의식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변화되어 그들의 위치나 장이 바뀌는 과정을 축하하는 일이며,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의미 있게 만든다. 개인과 공동체에게 삶을 재조정하고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프랑스 인류학자 르네프(Arnold Van Gennep)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는 입문자는 세 단계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분리’의 단계다. 과거로 상징되는 모든 것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세계와의 의도적인 단절이다. 이 단절을 ‘혁신’이라고 한다. 둘째, ‘전이’의 단계다. 첫 번째 단계가 단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전이는 문지방이나 현관을 의미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 ‘리멘(limen)’의 단계다. 낯은 자아를 소멸시키는 오랜 기간의 투쟁의 시간이다. 셋째 단계는 ‘통합’의 단계다. 충분히 전이 단계에 거한 자가 자신도 모르게 들어서는 단계이다. 통합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확신하는 순간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¹⁰ 이 세 단계는 항상 협력적이며, 모든 과정을 완수할 때 개인은 공동체 속으로 다시 결

⁹ Philip H. Platteicher, Dictionary of Liturgical terms,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1, 107.

¹⁰ 배철현, 「인간의 위대한 질문」(경기: 21세기북스, 2015), 40-41.

합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위치를 세우게 된다.

개인에 관한 의식(Rites of Life Crisis)은 생일, 질병, 성취, 학교 입학, 졸업, 결혼, 새로운 사업의 시작, 새집 마련, 죽음 등과 연관된다. 개인의 새로운 변화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보편적이며 공동적인 신앙 안에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관한 의식(Rites of Community)도 마찬가지로 신년주일, 교회의 창립기념, 교회의 신축봉헌, 그리고 입학식, 졸업식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통과 의식을 통한 축하식은 그들 모두 서로 한 부분이 되었음을 알리는 경험이다. 이러한 제의는 사람들에게 현재를 준비하게 하고 협력해야 할 미래의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자들은 사람들이 제의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제의들을 통하여 개인의 신앙과 순례의 길에 놓여있는 단계마다 발전적인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순례에 대해 세례예식, 입교식, 안수식, 임종식 등에 대한 통과의식의 실시와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¹¹ 의식(Rite)은 행위나 의례(Ceremonial)와는 달리 예배할 때 행한다.¹²

4. 의례(Ceremonial)

라틴어 ‘careomona’는 신성, 종교제의를 뜻하는 중세영어다. 의식(rite)과 예전(liturgy)을 실행하는 부분으로 규정된 행동이나 움직임이다(Pfatteicher, 1991, 28). ‘Ceremonial’(격식을 갖춘 의식)은 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기록한 예식법(Rubrics)을 가리킨다. ‘Rubrics’(예식서)는 그 명칭이 나타내는 것처럼 주로 붉은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Cereminial’(의례)은 의식(Rites)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공적인 행사(public ceremony)와 같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 ‘Rite’, ‘Ritual’과 구별된다. ‘Ritual’은 예배행위를 구성하는 말의 형식을 나타내는 주님의 기도, 서언, 모음집 등을 가리킨다.

II. 예배의 신학적·제의적 구조

1. 예배의 신학적 구조

예배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다. 예배의 주체자에 따라 크게

¹¹ John H. Westerhoff III & William H. Willimon, *Liturgy & Learning through the Life Cycle*.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80, 73-75.

¹²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조기연 역. 『기독교예배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8-39.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예배의 주체자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과 인간으로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보는 것이다.

1) 하나님의 계시

계시적 이해가 강조되는 차원으로 예배의 주체자를 하나님으로 보는 차원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예배를 해석하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재현의 과정이다.¹³ 이 차원에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한다. 즉 예배는 우리의 목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¹⁴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에서 우선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2) 인간의 응답

예배의 주체자를 인간으로 보는 차원이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간의 응답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예배를 해석하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의 행위인 인간의 응답이다.¹⁵ 이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예배는 인간의 반응이 강조되고 중요하다.

3)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

예배의 주체자를 하나님과 인간으로 보는 차원이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을 동시에 강조하는 견해이다. 이 차원은 예배의 교육목회적 의미를 끌어내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에 대하여 은준관은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표현한다.¹⁶ 예배의 형태와 강조점은 공동체에 따라 달리 표현되었지만, 기본적 의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적인 오심과 인간의 신앙적인 응답으로 표현되었다. 신앙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강조점을 가진 모든 예배는 계시와 응답 사이에서 생겨나는 만남의 사건이라는 핵심에서 통일성을 가진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오심과 인간의 신앙적인 응답 사이의 만남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만남 사건의 경험은 신앙적 경험이 되며, 동시에 배움의 사건이다.

예배는 공동체의 행위이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전통과 의미가 전수된다. 바로 이 공동

¹³ 은준관, 『기초 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9), 116.

¹⁴ Raymond Abba, 허경삼 역,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4), 114.

¹⁵ Paul H. Vieth, 김소영 역, 『기독교교육과 예배』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국, 1983), 24.

¹⁶ 은준관,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165~167.

행위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세계를 배우고, 자아와 그 책임을 배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신앙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신앙 형태와 삶의 스타일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배는 종교사회화 과정으로 교회교육의 중요한 방법이다. 교회교육으로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오심과 인간의 신앙적인 만남의 사건인 예배의 경험을 구체적인 교육경험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오심과 인간의 신앙적인 응답으로서의 만남의 사건이 아니라 사변주의 내지는 경험주의로 전락한 느낌을 준다. 교회교육으로서의 예배를 살펴볼 때에 오늘의 예배를 반성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오심과 인간의 신앙적인 응답으로서의 만남의 사건인 예배, 신앙공동체의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움의 사건으로서의 예배의 본질은 예배 경험의 회복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예배의 신학적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삶을 오늘에 증거하고 그분의 구원적 사건을 우리 안에 현재화시키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귄과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바로 이러한 성육신의 사건에 근거해서, 성령의 교제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화해와 사귄(예배)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요, 만남의 사건을 말한다. 그 외에 예배의 본질과 기능을 조명할 수 있는 용어와 신학적 정의들이 있으나¹⁷ 이 모든 용어들이 한결 같이 밝히고 있는 것은,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적인 오심과 인간의 신앙적인 응답 사이에서 생겨나는 만남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두 축으로 한다는 것이다.

〈표 2〉 예배의 신학적 구조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
주체자	하나님	인간	하나님 - 인간
예배해석	하나님의 구원과 그 재현 과정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의 행위	계시와 응답 사이에서 생기는 만남
예배와 교육의 관계	예배를 위한 가르침		가르침 = 예배

¹⁷ 제임스 화이트는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에서 위에 열거한 학자들 외에 Paul W. Hoon(“계시와 응답으로서의 예배”, 17), Evelyn Inderhill(“영원하신 분을 향한 피조 세계의 응답”, 19)을 소개하고 있으며, 로마 가톨릭의 또 다른 흐름의 예배 이해(“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인간의 성화”, 20)와 예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명칭들을 소개하고 있다: cult(재배, 경작, 비속하게 함과 같은 농경 문화적 경험에 근거, 24); worship(누군가에게 존경과 가치를 돌리다, 25); proskunein(“무릎을 꿇다”, 요 4:23); thusia/prosphora(“봉헌하다”, 롬 12:1, 히 13:15)

2. 예배의 제의적 구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의 신학적 구조는 ‘계시’와 ‘응답’이다.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는 계시와 응답이라는 구조에 대해 일치한다.

주일예배의 구조는 ‘예배로의 부름-말씀-(세례)성찬-세상으로 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서적 이미지를 출애굽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성서적 이미지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그의 책 「예배의 소개」(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에서 여러 신앙 전통들이 제시하는 다채로운 모습의 예배 이해를 소개한다.¹⁸ 비록 개괄적이기는 하나 예배의 본질과 전모를 조망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배란 독일어로 ‘Gottesdienst’이다.¹⁹ 이 독일어는 영어로 ‘Service of God’인데,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과 봉사’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에서 예배의 신학적 구조를 확인한다. 흔히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로 이해한다. 예배의 한 면을 본 것임에 틀림없으나 여기서 멈추게 될 경우 이것은 기독교적 예배의 이해라 할 수 없다.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과 봉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 즉 하나님의 계시가 선행되며,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장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기독교적 예배 이해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분을 향한 응답으로서의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게 하고 완성시킨다. 한 예를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와 세족식의 예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한 여인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붓고 자신의 긴 머릿결로 닦는다. 예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섬김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무릎 꿇고 몸을 굽히고 깨뜨린 진리의 향유로 세상의 발을 닦는 자신의 성육신의 신비를 한 여인의 섬김의 모습 속에 담아두신 것이다. 식사 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키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는 말한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요 13:6, 8) 예수께서는 대답하신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요 13:7~8)

¹⁸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16~28.

¹⁹ Martin Luther, 최주훈 역, 『루터의 대교리문답』 (서울: 복 있는 사람, 2017).

매주일 예배에서 향유를 깨뜨려 우리의 발에 부으시고 자신이 준비한 물로 우리의 발을 닦으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목격한다. ‘Service of God’은 이러한 기독교적 예배 경험을 가리키고 있다. 초대 교회 이후 예배는 ‘Paschal Mystery’로 이해되었다. ‘Paschal’은 영어로 ‘pass-over’(건너뛰) 혹은 ‘cross-over’(건너감), 한글 성서에서는 ‘유월’(逾越) 혹은 ‘유월절’(유월을 기념하는 절기)로 번역된다. ‘Paschal’이란 용어는 찢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이 죽음을 건너뛰어(paschal, pass-over, 유월)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과 갈라진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유의 땅으로 건너가는(paschal, cross-over, 유월) 출애굽 사건의 두 극적 장면을 압축적으로 지시한다. 즉 ‘Paschal’은 생명과 자유를 향한 이스라엘의 탈출 사건을 말한다. 후에 이 용어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뜻하기도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초대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일을 일컬어 ‘Christian Pascha’(Christian Passover)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건너뛰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을 건너뛸 수 있는 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고 성서는 증거한다. 초대 교회는 물을 홍해와 세례의 상징으로, 피를 어린 양과 성찬의 상징으로 이해한다.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긴 어린 양과 찢긴 홍해 안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홍해와 어린 양이다. 누구든지 그분을 건너지 않는다면(passover) 하나님과의 사귄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물과 피, 즉 세례와 성찬이 놓여 있는 매주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귄의 유월이 일어나게 되는 자리가 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마무리 지으실 이 구원 사역의 총체적 실체를 유월신비라 부른다. 예배란 세계를 자신과의 사귄 속으로 끌어들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역동적 사건이 발생하는 곳으로 유월 신비(Paschal Mystery)의 자리이다.²⁰

폰 알멘은 예배의 본질을 총괄갱신(recapitulation), 현현(epiphany), 심판(judgement)의 세 기능에서 확인한다.²¹ 인간 삶의 전 경험 영역이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총체적으로 재해석, 재구성, 재창조, 갱신되는 해석의 틀이고, 현장이 된다는 점에서 예배는 총괄갱신의 자리이다. 구원 역사의 제시와 그 속으로의 초대를 통해 역사적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시켜 준다는 점에서 예배는 교회 현현(Epiphany of the Church)의 자리이다. 초월적, 종말론적 세계 비판의 근거가 되고 새로운 약속과 소망의 출처가 된다는 점에서 예배는 심판의 자리가 된다.

²⁰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17-21.

²¹ Von Allme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외, 『예배학원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7).

Paschal Mystery: 출애굽 사건의 두 극적 장면

- 1) 찢긴 어린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이 죽음을 건너 뛰어(paschal, pass-over, 유월절)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
- 2) 갈라진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이 자유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paschal, pass-over, 유월)

2) 예배순서의 구조 : 예배로의 부름, 말씀, 성찬, 세상으로 파송

주일예배는 예배로의 부름, 말씀, 성찬, 세상으로 파송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주일예배 구조는 성서적, 역사적 근거를 가지며 역사적 종교로서의 교회의 신학적 자기 이해를 반영하고 성례 신학적 함의를 가진다. 주일예배의 성서적 근거는 출애굽 사건과 부활 현현을 경험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은 ‘**예배로의 부름 - 말씀 - 성찬 - 세상으로 파송**’이라는 주일예배 구조와 그 구조의 의미를 조명해 준다.

(1) 출애굽 사건

애굽 땅 이스라엘의 신음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탄식하신다. 무수한 영아들의 죽음과 어머니들의 눈물을 타고 바로의 등 뒤 그림자 속에 웅크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의 때를 준비하신다. 시내 산에서 돌아온 모세는 광야의 불타는 가시나무 앞에 섰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메마르고 초라한 언어를 통해 바로에게 선포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출 5:1) 사흘 길쯤 광야에 나가 자신께 희생의 예배를 드리게 하라(출 5:3)는 것이었다(**예배로의 부름**). 어린양의 피와 홍해를 건너(Pass-Over 유월) 시내 산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사십 주야 첩첩이 쌓인 거룩한 어둠 속에서 율법을 받는다(**말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성찬**)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전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게 될 자신의 본래적 모습, 즉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간다(**세상으로 파송**).

이스라엘의 탈출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도피가 아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포함한 전 세계를 자신과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의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세상으로 배어드는 일종의 파송식이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적 삶의 근원을 해석하는 틀이 되는 유월절 이야기는 주일예배 구조가 지니는 드라마적 구성과 내용을 확증해 준다.

- **예배로의 부름** :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출 5:1)
- **말씀** : 시내 산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사십 주야 첩첩이 쌓인 거룩한 어둠 속에서 율법을 받는다.
- **성찬** :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 **세상으로 파송** : 복의 근원으로서 전 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증거할 본래적 모습, 즉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간다.

(2)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이야기

안식 후 첫날 자신들의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초점 없는 여정에 오른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신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이 저들 옆에 계시나 저들에게 이 부활의 그리스도는 아직 낯선 얼굴, 낯선 이야기, 낯선 길이다. 눈먼 자들처럼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의 의미를 담아보려고 깨어진 언어를 피차 주고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결정적 사건은 제자들의 배반과 부인, 무지와 의심, 그리고 도주와 방황의 등 뒤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찾아오셨고 동행하시며 질문하신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무슨 일이요?” (눅 24:17, 19) 이 질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가진 세상의 이야기들을 찢고 태워서 하나님의 예배적 삶의 이야기 속으로 부르고 초대하신다(**예배로의 부름**).

그분이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사랑의 숨결, 거룩한 바람, 연민의 불길이 두 제자들을 재창조하여 그 속으로부터 영적 뜨거움을 일으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체험하게 한다(**말씀**). 말씀을 열어 놓으신 거룩한 밤의 식탁에서 그분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두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은 열리고 그 낯선 나그네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주님, 자신들이 걸어야 할 길,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게 된다(**성찬**). 그분은 홀연히 사라지시고 부활의 주님의 현현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다락방의 다른 제들과 함께 자신들의 삶의 전모가 얹혀 있는 이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삶을 이 신비한 이야기로 초대하고, 이 이야기를 따라 풀어내고 재창조하기 시작한다(**세상으로 파송**).

〈표 5〉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 본 예배의 구조

- **예배로의 부름** : 너희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나? 무슨 일이뇨?(눅 24:17, 19)
 - 제자들의 세상의 이야기를 찢고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고 초대하신다.
- **말씀** :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재창조하신다.
- **성찬** :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실 때 부활의 주님,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된다.
- **세상으로 파송** :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이야기.
 - 전 세계의 삶을 그 이야기로 초대하고 재창조하기 시작하신다.

3) 교회의 신학적·제의적 자기이해

주일예배는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회중적 응답 행위라는 교회의 신학적 자기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주일예배 구조는 아담과 하와,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시고(**예배로의 부름**),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고(**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성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을 자신과 화해시킴으로 만유를 자신의 영광과 생명과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세상으로 파송**)을 표현하고 있다. 주일예배 구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회중의 응답적 삶을 표현한다. 계시에 대한 응답의 표현으로서 주일예배는 대화적 구조(**예배로의 부름**과 아멘-**말씀**과 아멘-**성찬**과 아멘-**세상으로 파송**과 아멘)를 갖게 된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세상을 부르시고, 세상에 말씀하시고, 세상을 위해 자신을 주시고 화해하신다. 인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역에 참여한다. 회중적 아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에 동참한다. 예배는 회중적 아멘으로 가득 차야 한다.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도피를 위한 입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고, 입구인 동시에 파송하는 출구가 된다.

〈표 6〉 예배 구조의 네 단계

예배로의 부름	창조의 세계를 신비한 사건으로 초대	“아멘” 으로 응답
말씀	의미가 조명되는 곳	
세례 성찬	성례의 신비를 설명, 재해석, 참여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자리	
세상으로 파송	피조세계를 신비한 사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삶의 시작	

Ⅲ. 교육목회의 핵심인 예배

1. 예배를 위한 교육목회 : 의도적인 회중교육

예배의 교육적 의미는 예배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회중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이것을 예배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Worship)이라 할 수 있다. 예배가 온 회중의 행위라면, 모든 사람에게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를 갖추어 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순서의 의미와 유의할 점들을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

예배가 교회교육의 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필수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교회교육에 중요한 과제를 부여해 준다. 즉 예배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제시로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이 일깨워지고, 신앙이 강화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얻게 되는 교육적 유익으로 인하여 필수적인 기독교교육과정이 된다.

교육목회자는 회중의 모임을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교육적 전략으로 생각해야 한다. 예배는 개인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회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깊이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신들의 삶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예배는 친교를 통한 개방성과 정직성, 생활의 공유로 회중의 상호 관계적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예배는 전 회중의 행위이기에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예배할 때 서고, 앉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찬양하는

법을 교육해야 한다. 회중이 한자리에 모이면 첫째, 새신자를 환영하고, 서로 친교를 나눔으로 각자의 문제의 필요성을 알고 도와주며 공동체의 생활을 이뤄가야 한다. 그리고 예배 장식, 상징들, 찬송가 이해, 교독문, 기타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하며 예배 참여를 보다 의미 있게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성경공부에서 세대를 초월한 예배의 교육적 경험과 토의를 나누게 된다면 예배를 보다 증진시키게 되고 교육과 예배는 상호보완 될 수 있을 것이다.

2. 예배를 통한 교육목회 : 예배와 신앙공동체

예배가 교육 자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신앙공동체의 예배에서 자연히 신앙형태와 삶의 스타일을 배우게 됨으로 예배 경험은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사회학습이론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위한 행동학습들은 모델의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 혹은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예배라는 의식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의 고백과 삶의 스타일을 자연히 배워간다. 그러므로 예배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성을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교육은 가르침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시작해야 한다.²² 이를 예배를 통한 교육(Education in Worship)이라고 할 수 있다. 온 회중이 드리는 예배의 경험을 통하여 신앙형태와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것이다. 모든 예배 과정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경험이 이루어진다. 이 만남의 경험은 참여자로 하여금 신앙공동체가 고백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시키는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회중은 예배의식과 분위기에 참여함으로써 신앙공동체의 신앙을 배운다.

예배를 통한 배움을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직접 예배 인도자로 임명하고 예배의 응답자로 참여하게 하여 직접적인 예배경험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나 어른들에게는 찬양, 고백, 성경봉독, 기도, 설교, 봉헌, 그리고 축도의 깊은 경험과 의미를 알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다. 회중은 예배의 경험을 통하여 공동체로 형성됨으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의미는 회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준다.

예배를 강조하는 웨스터호프는 교육의 장을 신앙공동체라고 보고, 이 신앙공동체에서 경험되는 종교사회화가 곧 기독교교육이라고 해석한다. 이런 점에서 웨스터호프는 신앙과 종교의식(Ritual)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종교의식과 예배는 언제나 교회의 중심이 되어 왔다. 종교의식의 생활은 공동체의 자기 이해와 신앙의 방법을 유지하려고 전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세계의 관계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경험과 의미를 표현한다. “그들의 종교의식을 통하여 그들이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활과 종교의식이 매

²² 임영택, 나형석, 「예배교육목회」(서울: kmc, 2014), 15.

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신앙공동체 안에서 신앙은 상징적인 이야기(거룩한 이야기)들과 상징적인 행위(종교의식과 제의)들을 통하여 집합적으로 표현된다.²³

3. 예배의 기획과 훈련

로렌스 리처드(Lawrence O. Richards)는 최대의 교육적 효과를 주기 위한 예배를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하나님께 초점을 두되 그가 본질상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말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과 회중의 화답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계획과 준비과정부터 예배인도까지 회중들을 참여시켜야 한다.²⁴

폴 비스(Paul Vieth)는 예배 자체에 대한 교육과 예배의 인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²⁵ 교회교육의 한 요소로서의 예배교육에는 훈련을 위한 준비, 종교적 언어와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 의식의 해석, 찬송가 지도, 음악, 기도, 헌금, 예배당 시설에 대한 교육 등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예배인도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의 의미와 수행과정을 교육시키는 일, 즉 성가대의 역할, 성경봉독자, 기도인도자, 헌금위원과 안내위원의 역할들이 예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교육하는 일이 교회교육의 한 요소에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배움의 경험도 교회교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교육과 예전에 의해서 수반되는 경험은 교육적으로 보다 더 효과적이다.

〈표 7〉 예배와 교육목회

	예배를 통한 교육	예배를 위한 교육	교육의 핵심인 예배
의미	예배 경험을 통해 신앙 형성	예배를 위한 의도적인 교육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
실천	직접적인 예배 경험을 갖도록 하라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라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라

²³ Gwen K. Neville & John H. Westerhoff III, Learning Through Liturgy (The Seabury Press, 1978), 94.

²⁴ Lawrence O. Richard,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문창수 역, 『교육신학과 실제』(서울: 정경사, 1991), 343~344.

²⁵ Paul Vieth, 김소영 역, 『기독교교육과 예배』(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국, 1983), 24.

미국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부활교회(<http://cor.org>)는 “성령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인위적으로 기획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무색할 정도로 예배기획팀을 조직하여 철저하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실천한다. “준비 없는 예배는 감동도 성령의 임재도 덜 할 것”이라는게 교회의 설명이다.²⁶

〈표 8〉 부활교회 예배기획팀의 조직

• 예술목회자(음악, 축제 예술 목회자, 교회의 전체 음악 사역을 관리)
• 행정담당자(수석부목사: 기획팀을 관리, 조정하며, 행정, 예배, 돌봄 사역담당)
• 돌봄사역자(3인의 목사: 예배의 초점을 바탕으로 한 목회 기도문 작성 및 제출, 돌봄 사역 담당)
• 행정비서(기획팀 모임을 기록하고 입력, 모임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자료를 수집)
• 비디오감독(비디오 사역), 조감독(설교를 돕는 자료를 만듦)
• 열린 예배 감독자(열린 예배의 음악 리더, 설교 주제에 맞춘 예배 음악 선별)
• 실무 스텝 보조자(행정 책임자를 대신해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정리)
• 예배 사역 담당자(예배당, 배너, 시작 외형 담당, 성찬식과 헌금위원을 감독)

예배기획팀은 월요일 오전 10시-11시30분(12시)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모인다.

〈표 9〉 예배기획팀의 모임순서

기도와 나눔	한 주 동안 슬펐던 일, 기뻐했던 일 나눔
개선점 평가	지난 주 예배에 잘 된 것, 개선할 것 나눔(끊임없는 갱신 가능)
다가올 예배에 대한 토론	예배 계획, 설교검토, 특이사항, 비디오, 광고
설교에 대한 논의	설교의 핵심을 언급(아이디어와 정보를 요청)
예배 기획안 나눔	음악, 찬송, 이벤트, 비디오팀(설교에 필요한 사진, 성경구절 등)

담임목사인 해밀턴(Adam Hamilton)은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체계적인 예배기획을 위해 작은 교회들은 신실한 평신도들에게 예배팀을 맡기는 것이 가능함을 언급하면서, 이 팀은 교회를 위한 예배 기획의 발전소이며 끊임없는 예배의 갱신과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²⁶ Adam Hamilton, 유성준 역, 『말씀을 해방시켜라』(서울: kmc, 2009), 8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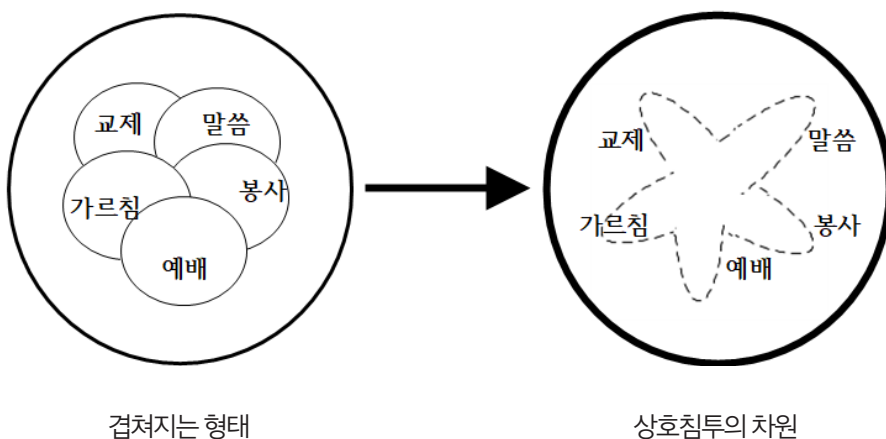
Ⅳ. 교육목회와 예배의 상호침밀을 위한 다섯 가지 요소

1. 교육목회의 통합으로서의 예배

해리스(Maria Harris)는 교육목회를 회중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창조적, 교육적 역할로 이해한다. 목회의 주요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구 성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목회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이며 교회의 본질적 사역활동의 근거인 초대교회 공동체의 다섯 가지 특징(행 2:42-47)을 중심으로 한 교육목회의 주제를 제시하였다.²⁷

다섯 가지 주요 개념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 케리그마(kerygma), 사도들의 가르침인 디다케(didache),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koinonia),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성례전을 행한 레이투르기아(leiturgia), 가난한 자들과 떡을 떼며 재산을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디아코니아(diakonia)등이다. 이러한 교육목회의 개요(schema)에서 5가지 차원, 교제(koinonia), 예배(leiturgia), 가르침(diadache), 봉사(diakonia), 말씀(kerygma)은 ‘커리큘럼’을 구성하며 이는 교회의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된다.²⁸ 각 차원들은 상호침투하며 서로를 포함해야 하고, 회중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에 참여할 때 교육적으로 임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예배’는 교제, 말씀, 가르침, 봉사, 예배의 모든 차원이 침투되고 통합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림 1] 교육목회 차원들의 상호침투



²⁷ 김국환, 『교육목회』(서울: 예향, 2015), 66.

²⁸ Maria Harris, 고용수 역, 『교육목회 커리큘럼』(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17-21, 171.

2. 기독교교육의 핵심을 포함하는 예배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전통, 변혁, 사회화, 가르침의 네 가지 개념이 20세기 동안 논쟁으로 이어져 왔다. ‘휴브너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우러져 사는 것 자체가 교육적인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²⁹ 변혁과 전통의 개념은 교육의 목적에 대해 새로운 세계의 창조와 종교전수를 초점으로 나눌 수 있고, 가르침과 사회화는 사용되는 방법, 과정, 활동과 연관지어 가르침은 개인적, 사회적 개혁 및 변혁과 연결되며, 사회화는 전통을 전수하거나 지탱하는 것이다.³⁰ 예배를 위한 교육, 예배를 통한 교육은 변혁과 가르침, 전통과 사회화를 포함하기에 적합한 교육목회의 필연적인 매개이다. 네 가지 개념적 용어의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혁과 가르침

변혁(transformation)이란 형태와 구조, 본질이 변화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 정의의 중심 개념은 ‘변화의 과정’(process of change)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군중, 또는 사회의 형성 이상의 것이다. 변혁이 종교교육의 중심이 될 때, 종교교육자는 변화의 과정을 추적한다.³¹ 목회과 가르침은 예수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했다. “가르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행 8:31)라며 빌립을 칭찬한 이디오피아 고위관리를 기억하고, 교회는 목회와 가르침의 분리가 아닌 통합을 이루며 교육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

가르침이란 가르치는 내용을 다루는데 학생들이 희망하는 결과를 위해 주제의 유용성과 진위성, 그리고 진실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도적인 행위나 과정을 가리킨다. 가르침을 통해 학습자는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의도적인 가르침은 주입(indoctrination)이나 전달 위주의 행위가 아니라, 학습자가 비판적인 숙고를 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³²

2) 전통과 사회화

전통(tradition)이라 함은 문화적이거나 종교적인 신앙 혹은 행위로 언어, 문화유산, 습관 또는 관례로 표현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 만일 어떤 이가 전통 전달을 종교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는 내용, 이야기, 예배의식, 예배 행위나 삶의 가치 등을 종교교육을 할

²⁹ Mary. C. Boys ed, 김도일 역,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5.

³⁰ 김도일, 『현대기독교교육의 흐름과 중심사상』(서울: 동연, 201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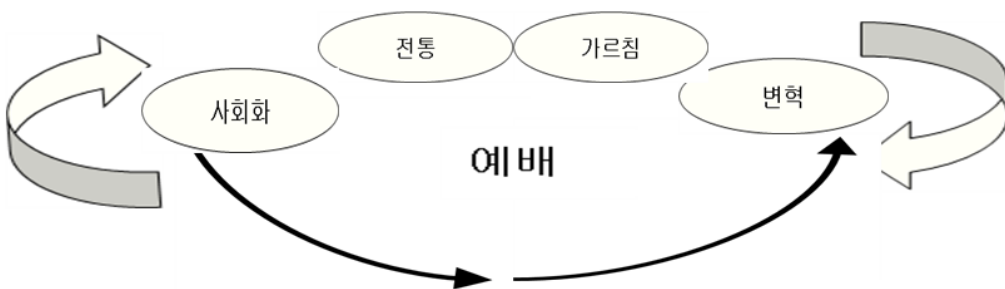
³¹ Mary. C. Boys ed, 김도일 역,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24-25.

³² Ibid., 42-43.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즉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통을 전달하는 것’과 ‘우리의 전통을 잘 간직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길 것이다. 히브리,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러한 전통전수가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³³ 사회화(socialization)란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현대에서 오는 세대를 지나며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행위는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간다.³⁴

신앙공동체 교육학자들은 신앙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곧 교육이며 일차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제시한다. 이것은 신앙교육에서 신앙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신앙공동체 개념에 영향을 많이 받은 기독교교육학자는 넬슨(Ellis C. Nelson),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 III), 포스터(Charles R. Foster) 등이 있다. 이들은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을 형성하며,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것은 예배의식이라고 말한다. 예배의식은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 있으면서 현재의 삶을 성찰하게 하며 개혁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배의 영향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배움과 예전을 통합함으로써 교회교육은 강화될 수 있다.

[그림 2] 예배를 통한 기독교교육 핵심들의 상호침투



³³ Ibid., 19.

³⁴ 김도일, 『현대기독교교육의 흐름과 중심사상』(서울: 동연, 2010), 32-33.

교육목회에 몸담은 이들은 예배와 교육목회의 통합을 이루는 교육적 요소 5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교회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예배를 구성, 기획, 실천해야 한다.

〈표 10〉 예배와 교육목회의 통합을 이루는 5가지 요소

	예배를 위한 교육	예배를 통한 교육	예배기획과 훈련	교육목회의 통합으로서의 예배	기독교교육의 핵심을 포함하는 예배
의미	예배를 위한 의도적인 교육	예배 경험을 통해 신앙 형성	예배중심과 향상을 위한 노력	교제, 가르침, 봉사, 말씀, 예배의 통합	변혁, 가르침 전통, 사회화
실천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고 무엇을 할지 가르치라	직접적인 예배 경험을 갖도록 하라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철저한 준비와 참여	예배 안에서 각 차원들이 상호침투 되고 드러나도록 하라	예배에 의도적으로 기독교교육의 핵심을 포함하라

나가는 말

주일의 예전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인생의 이해와 선택된 삶의 방식을 그 자리에서 집약함으로 공동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모임이다. 예배의 포기는 신앙의 소실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공동체의 모든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자로 받아들이며, 끌어들이는 일이다³⁵ (Westerhoff III, 1983, 98). 그러므로 모든 예배와 의식의 깊은 의미를 교육하고, 하나님을 예배 안에서 직접 경험하여, 신적인 삶(divine life)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돕는 일이 기독교교육의 사명이다.

³⁵ John H. Westerhoff III,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3), 73-75.

| 참고문헌 |

(국내서적)

- 김국환 (2015). 교육목회. 서울: 예향.
- 김도일 (2010). 현대기독교교육의 흐름과 중심사상. 서울: 동연.
- 배철현 (2015). 인간의 위대한 질문. 경기: 21세기북스.
- 임영택·나형석 (2014). 예배교육목회. 서울: kmc.
- 은준관 (1989). 기초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은준관 (1988).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번역서적)

- Abba, Raymond (1974). 허경삼 역.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Allmen, Von (1997).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외. 『예배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Boys, Mary C. ed (1999). 김도일 역,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Hamilton, Adam (2009). 유성준 역. 『말씀을 해방시켜라』. 서울: kmc.
- Harris, Maria (1997). 고용수 역. 『교육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Luther, Martin (2017). 최주훈 역. 『루터의 대교리문답』. 서울: 복 있는 사람.
- Richard, Lawrence O (1991).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문창수 역. 『교육신학과 실제』. 서울: 정경사.
- Vieth, Paul H (1983). 김소영 역. 『기독교교육과 예배』.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국.
- White, James F (2000).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조기연 역. 『기독교예배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Westerhoff III, John H (1983). 정용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외국서적)

- Neville, Gwen K & Westerhoff III, John H (1978). Learning Through Liturgy .The Seabury Press.
- Pfatteicher, Philip H (1991). Dictionary of Liturgical terms.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 Westerhoff III, John H (1976).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y: The Seabury Press.

학생들은 왜 분반공부시간에 집중하지 않을까?

| 정진경 목사
기지시감리교회 초등부

내가 맡은 학생들은 왜 분반공부시간에 집중하지 않을까? 20분이라는 시간은 왜 이리 길게만 느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분반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아본다. 잘 준비된 교사들 덕분에 교회의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그 가운데서 학생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교회학교 내에서의 분반공부란, 교사와 학생이 세분화된 반(班)으로 나뉜 최소 단위의 교육적 구조이다. 주로 연령에 따라 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고등부 등으로 부서가 구분되었고, 그 안에서도 학년 별로 반을 구성한다. 교회에서 임명한 교사 1명이 담임교사가 되어 맡겨진 학생들을 돌본다. 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한 반은 최소 1명에서부터 최대 20명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최근 교회학교의 수적 감소로 한 반을 구성하는 학생의 연령 폭이 넓어지고 있다. 만 0세에서 만 6세까지 미취학 아동이 하나의 반을 이루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반을 이루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미취학 아동과 중·고등학생이 ‘교회학교’라는 하나의 반에서 함께 예배하고 소그룹 모임을 갖기도 한다. 여러 기준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 교육 대상을 반(班)으로 나누고,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드린 후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분반 공부라고 일컫는다.

로버트 T. 오고맨(Robert T. O'Gorman)은 공동체 교육의 방법은 봉사, 성찰, 교제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봉사(Service)는 교회의 손으로 비유할 수 있다. 봉사는 행동의 표현, 또는 하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평일에 행하는 여러 종류의 행위들이 모두 봉사이다. 학생들은 평일의 삶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분반으로 가지고 와서 나누고 성찰하는 경험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봉사를 성찰하며 학습한다.¹ 분반을 연령별로 나누는 이유 중 하나는 또래들이 비슷한 봉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반에서 또래와 비슷한 봉사를 경험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성찰(Reflection)은 교회의 머리로 비유할 수 있다. 현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성경과 전통을 성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만든다. 그렇게 성찰은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신을 넘어서 타인과 우주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성찰은 정체성을 찾는 것,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삶의 이슈들을 다룬다.²

마지막으로 교회의 심장으로서 비유하는 교제(Communion)는 특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다른 공동체들 사이에서 결속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교제는 분리된 정체성들을 그물망으로 결속한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연합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상화한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들의 교제이다.³

우리는 봉사를 통해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명을 배우고, 성찰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피조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배운다.⁴ 이는 봉사는 학생들의 삶으로, 성찰은 성경 이야기와 전통의 교육으로, 교제는 공동체 내에서의 다짐과 격려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봉사, 성찰, 교제, 즉 학생들의 삶과 성경과 다짐과 격려가 분반 공부 교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요즘 교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반 공부 교재⁵들의 교육목표에 따르면 분반공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을 배운다.

둘째, 성경과 삶을 연결시키며 성찰한다.

셋째,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한다.

¹ 잭 L. 세이 무어, 『기독교교육 지도그리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62.

² Ibid., 64.

³ Ibid., 64.

⁴ Ibid., 65.

⁵ 기독교대한감리회「아하! 바이블큐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하나바이블」, 두란노「가스펠 프로젝트」, 파이디온선교회「예수빌리지」, 꿈미「그림웨이브」, 한국장로교출판사「하나님나라 씨앗공과」 등

이 세 가지의 목적은 위에서 말한 공동체 교육의 방법인 성찰, 봉사, 교제와 각각 연관이 있다. 이는 각 대표 교재들이 매 주일 사용되는 활동의 순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차이가 있다면 순서와 방법이다. 봉사, 성찰, 교제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의 차이를 가진다. 학생들의 삶에서 나타날 물음들로 분반공부를 시작하는 교재도 있고,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복습하며 시작하는 교재도 있다. 쉽게 말해 삶에서 시작하냐, 성경에서 시작 하느냐의 차이이다.

방법에서의 차이를 가지기도 한다. 예배시간에 들은 성경 말씀을 ‘퀴즈 풀이’를 통해 복습하는 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며 복습하는지, 성경말씀을 그린 그림을 보거나 색칠하면서 복습하는지 차이가 있다.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 목표를 세운 뒤 그에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교회에 맞는 교재를 준비했다. 부서 지도자는 ‘지도자용 교재’를 참고하여 설교를 하고 예배의 형식을 짜기도 한다. 교사들의 손에는 ‘교사용 교재’ 그리고 참고할 ‘어린이용 교재’가 쥐어졌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행 순서에 따라 하나씩 살펴 보고자 한다.

1. 분반 공부의 준비

분반공부는 언제 시작할까? 주일 부서 예배가 끝난 후? 주일에 학생들을 교회에서 만나서? 아니다. 교사가 분반공부를 준비할 때부터가 시작이다.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여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 중 잊지 못할 선생님들이 있다.

그 중 한 분은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생님의 분반공부 교재이다. 선생님의 교재는 매주 선생님이 미리 적어오신 글씨로 빼곡했다. 분반공부에 적합한 질문들에 선생님이 먼저 답을 다 적어오셨다. 교사용 교재를 보고 그저 읽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먼저 그 질문에 고민하시고, 우리들이 대답할 것만 같은 예상답안까지도 다 적어오셨다. 죄송하게도 그때 선생님이 정확히 무얼 가르쳐 주셨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분반공부를 준비하시고, 열심히 가르쳐주셨던 모습은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분반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손에는 교사용 교재가 들려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 첫 번째로 할 일은 교사용 교재를 내려놓는 일이다. 그리고 성경책을 든다. 이번 주 학생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을 찾아 읽는다. 교사용 교재에만 의존하다보면

이번 주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활동’을 진행하는 MC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교재의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왜 이 활동을 진행하는 지, 당위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본문을 읽은 다음에, 교사용 교재를 펼친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성경 본문과 주제를 확인했다면, 이제 진행해야 할 활동들을 살펴본다. 활동을 진행하는 정확한 방법을 파악한다. 교재에 제공되는 대사를 나의 말로 바꾸기도 하고, 실제 우리 반 학생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어떤 학생은 글자를 적기 어려워 할 것이고, 어떤 학생은 말장난을 건넬 것이다. 어떤 학생은 승부욕을 불태울 것이고, 어떤 학생은 앞서 나가 벌써 다음 문제를 풀고 있을 것이 그려진다.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알게 된 성향과 성격을 기억하며 예상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하고 준비한다. 새해에 분반이 새로 편성되어 처음 만나는 학생들이라면 작년에 학생들을 맡았던 교사에게 학생들의 성향과 성격 또한 인수인계를 받는다. 지난 분반공부 시간에 나눴던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학생들의 삶과 경험과 관련해서 적절한 예화나 예시를 들 수 있을지 생각하고 메모한다.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과 관련된 간식을 준비하여 재미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말씀을 공부할 때는 고래모양 과자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포도 주스나 포도모양 젤리를, ‘반석’이 나오는 말씀을 배울 땐 돌멩이모양 초콜릿을, ‘금’이나 ‘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금은보화 모양의 사탕이나 초콜릿을, 오병이어 말씀을 배울 때는 물고기 모양의 케이크 과자나 붕어빵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2. 분반 공부의 시작

예배가 끝난 후, 분반 장소에 모였다. 만만의 준비는 마쳤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학생들과 모였을 때 자리를 정해야 한다. 가능하면 둥글게 앉는 것이 좋다. 대개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들을 땐 강의식 구조로 앉는다. 인도자나 설교자가 앞에 나와 있고, 그 외의 모든 회중은 앞을 바라보도록 앉는다. 이러한 구조는 시선이 한 곳으로 모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방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인도자와 회중 중 한 사람 혹은 몇 사람만이 소통할 수밖에 없다. 예배시간에 충분히 일방적인 가르침이 주어졌다. 그러니 분반공부로 모여서는 쌍방의 소통을 해야 한다. 교사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표정을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둥글게, 최대한 서

로의 얼굴이 보이도록 앉는 것이 좋다. 오고맨의 공동체 교육이 ‘교제’를 포함하고 있듯이, 학생들은 성경이나 교사의 가르침으로만 배우지 않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도 배운다. 심지어는 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모습에서 배운다. 학생들이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을 도와가며 분반공부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각자의 결단을 발표하며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각자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앉는 모양이 중요하다.

둘러앉거나, 서로의 얼굴이 보이게 앉았다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삶을 확인하는 일이다. 교재를 나누어 주고, 교재를 펼쳐서 바로 교재로 들어가기 보다는 한 주간의 일들을 확인한다. 교재를 준비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한 어린이가 발을 다쳐 준비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들으며 학생들의 경험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생각한다. 삶의 경험과 말씀, 분반공부에서 가르치고자하는 주제를 연결할 때,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3. 분반 공부의 진행, ARCS 모형

분반공부를 할 때 교사들은 교사용 교재를 참고하여 분반공부를 진행한다. 이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 시간에는 교재의 내용을 100% 소화하며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ARCS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Keller(1999)는 교수설계 이론으로 학습동기의 다양한 요인들을 연구하여 학습동기 유발의 일반 모형인 ARCS 모형을 개발했다. 학습동기는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이라는 네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네 가지의 요인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ARCS 모형’이라 부른다.

Attention 주의집중

감각적 주의 집중 전략 | 인지적 주의 집중 전략 | 변화성 주의 집중 전략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동기 요소는 주의집중이다. 주의집중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지속시키는 요소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환경을 탐구하게 하고,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여 흥미를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Keller교수는 학생의 주의집중을 이끌고 유지하기 위한 지각적, 탐구적 각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구

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러한 동기 전략은 단순한 외적 자극(소리내기)에서부터 정신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문제 제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주의집중을 위한 세 가지의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감각적 주의 집중 전략

첫 번째는 감각적 주의 집중 전략이다. 수업의 목표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분반모임의 준비물을 준비할 때 학생들에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준비하라고 하였다. 실제 물건을 보여주었을 때 감각이 집중되어 보다 쉽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요즘에는 교재에 다양한 시청각자료들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바이블큐브》에서는 단원 마다 암송해야 할 성경말씀을 뽑아 ‘요절송’을 제작하였다. 영상을 보며 멜로디가 붙은 성경말씀을 따라 부르고, 울동을 따라하며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이다. 또 초등부 교재는 말씀을 복습할 수 있는 영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각 자료를 분반모임에 활용하면 학생들이 온 감각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② 인지적 주의 집중 전략

두 번째 전략은 인지적 주의 집중 전략이다. 적절한 발문(분석, 종합, 평가 수준)으로 학생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호기심을 불러 넣는 방법이다. 울로코프스키(Wlodkowski)는 학습자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혼란을 맞볼 때 학습 참여가 가장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긍정적 차원의 불만족을 느끼면 더 힘써 생각하게 되고, 더 깊은 성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⁶

③ 변화성 주의 집중 전략

마지막은 변화성 주의 집중 전략이다. 교사가 다양한 목소리와 톤, 신체적 움직임, 준어적 요소(음량, 톤의 변화, 억양), 공간적 요인(거리, 영역)에 변화를 주어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교수는 면대면 소통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이는 언어적 요소(Verbal), 청각적 요소(Voice), 시각적 요소(Visual)로 3V라 부른다. 언어적 요소는 어휘 선택과 메시지, 청각적 요소는 목소리의

⁶ 로이 B. 주크, 『예수님의 티칭스타일』,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0), 242. Wlodkowski, Enhancing Adult Motivation to Learn, 168.

높낮이, 톤, 강약 조절, 시각적 요소는 보디랭귀지와 표정, 제스처를 포함한다. 메라비언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사람의 인상과 호감도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언어적 요소는 7%, 청각적 요소는 38%, 시각적 요소는 55%라고 한다.⁷

즉 몸짓 언어, 밝은 미소, 친절한 말투, 학생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여주는 눈빛과 손 모양에 적절히 변화를 줄 때에 학생들이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반공부를 준비할 때 실제로 생각하고 예행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

Relevance **관련성**

목적 지향성 전략 | 친밀성 전략

주의집중이 된 후에 학생들은 왜 이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지각하려 한다. 호기심이 유발되었다 해도 학습 내용이 가치 없다고 느끼면 동기는 사라진다. 학습 내용이 학생의 미래, 관심사, 경험과 관련될 때 관련성이 확립된다. Keller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현재 학생의 흥미와 목적, 과거의 경험 등과 연결하여 학습 내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관련성의 핵심전략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목적 지향성 전략**

목적 지향성 전략은 학생들의 현재 생활에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가 김치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면,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지루하지 않다. 집을 나서기 전 일기예보를 보며 오늘 입을 옷을 고르고, 우산을 챙기는 일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줄지 연결시키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삶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배우는 내용과 학생들의 삶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당장 그들의 삶에 유용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반공부를 진행하는 교사에게 특별히 맡겨진 사명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로 인해 우리의 삶

⁷ 김대권, 『나만 몰랐던 수업 비밀』, (경기: 도서출판 지식프레임, 2024) 30.

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지 알려주며 분반공부의 목적을 상기시켜주어야 한다.

② 친밀성 전략

두 번째는 친밀성의 전략이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방법이다.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농업에 종사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를 가르치시며 종종 농사와 연관된 예화들을 사용하셨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과일나무를 가꾸고, 포도원을 손질하고, 양과 염소, 가축을 기르는 일 모두가 예수님이 진리를 설명하시는 재료가 되었다.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참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해 주었고(마 10:29);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영적 분별력에 대한 방해물을 떠올리게 한다(마 7:5);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들풀은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고(마 6:30), 나무들은 참된 성장의 비밀을 보여준다(마 7:17, 18). 이러한 예화들은 추상적인 말보다 훨씬 생생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⁹

Confidence 자신감

개별수행의 기회 제공 | 수준에 맞는 속도와 난이도 조절 | 적절한 긴장과 시간 관리 |

피드백 제공 | 칭찬 | 분명한 학습 목표 제시

100%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때 높은 동기가 유발되고 유지된다. 자신감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지각된 능력’, ‘지각된 조절감’,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다. 지각된 능력은 자신에게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고, 지각된 조절감은 자신이 결정한 선택이나 노력이 행동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이다. 성공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이 성공의 확신이 있을 때 더욱 노력하여 실제 성공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① 개별수행의 기회 제공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여섯 가지의 핵심 전략이 있다. 첫 번째는 개별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예수님도 배우는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작은 일부터 참여하게 하셨다. 제자들이 회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셨고(요 4:2), 열두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귀신을 쫓

⁸ 로이 B. 주크, 『예수님의 티칭스타일』, 258.

⁹ Ibid., 255. Donal Guthrie, “Jesus”, in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ed. Elmer

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며,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셨다(마 10:1-40; 막 6:7-13, 눅 9:1-5; 참조, 막 3:14-15).¹⁰

② 수준에 맞는 속도와 난이도 조절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속도를 진행하고,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교재에 준비된 내용을 A부터 Z까지 100%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편이 좋다. 하나라도 제대로 완성하고 수행하며 성공의 경험을 맛보고, 다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교사용 교재에만 눈을 두지 말고,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중간 중간 확인하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 보채거나, 교사가 모든 정답을 말해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적절한 긴장과 시간 관리

세 번째로 적절한 긴장과 시간을 관리하며 학습하도록 활동 시간을 미리 제시한다. 분반공부는 일대일 과외가 아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모둠활동이다. 그러다보니 어떤 학생이 고민하는 사이, 다른 학생은 이미 정답을 다 적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학생들은 색칠을 모두 끝냈는데, 한 명의 학생만 꼼꼼히 색칠하느라 모두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 정답을 적을 시간을 ‘1분’동안 준다며 미리 고지하거나, 교사가 숫자 10을 세는 동안 활동을 진행하라고 미리 제시해 주면 좋다.

④ 피드백 제공

네 번째로 학생들에게 자주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분반공부를 진행하다보면 교사의 동의나 확인을 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신이 한 것이 맞는 지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교사가 먼저 학생들을 확인하며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피드백을 주고, 또 틀린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도 스스로에게 확신을 얻어 자신 있게 실천할 것이다.

¹⁰ Ibid., 266.

⑤ 칭찬

학습 성과에 대해 교사와 친구들이 칭찬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분반으로 모이면 교사 뿐 아니라 다른 또래 학생들도 함께 한다. 서로가 칭찬을 하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는다. 이때 유의할 점이 있다.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라 ‘좋은 칭찬’을 해야 한다. 좋은 칭찬이란 결과가 아닌 성장을 칭찬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습득했는지가 중요하지만, 교회는 성경 지식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교회 교육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경은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이다. 알아야 행하는 것도 맞지만, 행해 봐야 제대로 알게 되기도 한다.¹¹ 학생들의 실천이 어른들의 기대에 100%미치지 못했더라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찾아내어 칭찬하자. 그러면 자신감을 얻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⑥ 분명한 학습 목표 제시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유발하는 방법은 분명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일이다. 각 교재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술활동, 체육활동, 음악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진행할 때 교사가 분명한 학습 목표를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교회에 와서 미술학원에서 하듯이 색칠공부만 하고 돌아가거나, 열심히 땀 흘리며 체육활동만 하고 돌아가는 꼴이 되고 만다. 이는 성경을 배우는 하나의 수단이지, 분반공부의 목표가 아니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기 전과 후로 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 지,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Satisfaction

협동의 기회 제공 | 과제 - 내재적 보상 제공

마지막 학습동기 요인은 만족감(Satisfaction)이다. 만족감은 자신의 학습 경험과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다. 학생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 증거와 인정이 공정했다고 믿을 때 느낄 수 있다. 학습한 것을 가까운 곳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내적인 만족감을 유발시키며 외적인 보상도 만족감을 유발한다. 학습 결과가 학생의 기대와 일치하고, 학생이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면 학습 동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¹¹ 이의용, 『말이 통하는 교사』,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20), 39.

① 협동의 기회 제공

만족감을 주는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동기를 부여할 때 동료들과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다. 분반공부를 진행할 때 학생들을 자극하기 위해 경쟁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의 품에 먼저 안길 것인가 시합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선착순이 아니다.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한 마리의 양이라도 찾고 찾아서 함께 가야 한다. 그렇기에 특히 교회에서는, 분반공부시간에는 경쟁하기보다는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힘을 모아 어려운 과업을 해결해 나갈 때 학생들은 한 몸 이룬 교회를 이해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② 과제-내재적 보상 제공

분반공부를 마치며 학생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핵심 전략은 과제-외재적 보상보다 과제-내재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매일 학생들에게 실천여부를 확인하거나, 가정에 일임하여 다짐한 것을 지킬 때마다 보상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외재적 보상 때문이 아닌, 말씀대로 사는 삶,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학생들의 동기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외재적 보상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스스로 내재적 보상으로 인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밖에도 학습활동을 학생들의 흥미와 연결시키는 것,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어 자율적인 욕구에 반응하게 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하여 적용시키는 전략이 있다.

나가는 말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마야 안젤루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했는지는 기억한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이유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기대해서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학생들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학생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향해 가지실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어야 한다.

분반공부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막상 진행할 때 좀 버벅여도 괜찮다. 전문가처럼 물 흐르듯이 재미있고 유익하게 진행하고, 또 학생들의 모든 질

문에 완벽한 답을 제시해 주는 선생님이면 좋겠지만, 학생들은 오늘 선생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반별 모임을 진행하셨는지 평가하기 보다는, 오늘 선생님이 우리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주셨는지, 나를 칭찬해주셨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분반 공부 교재를 보다가도 한 번 눈을 들어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웃음을 지어주고, 바빠 활동과 예배를 준비하시다가도 한 번 눈을 들어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분반 공부 반들이 되기를 기대한다.